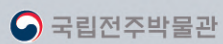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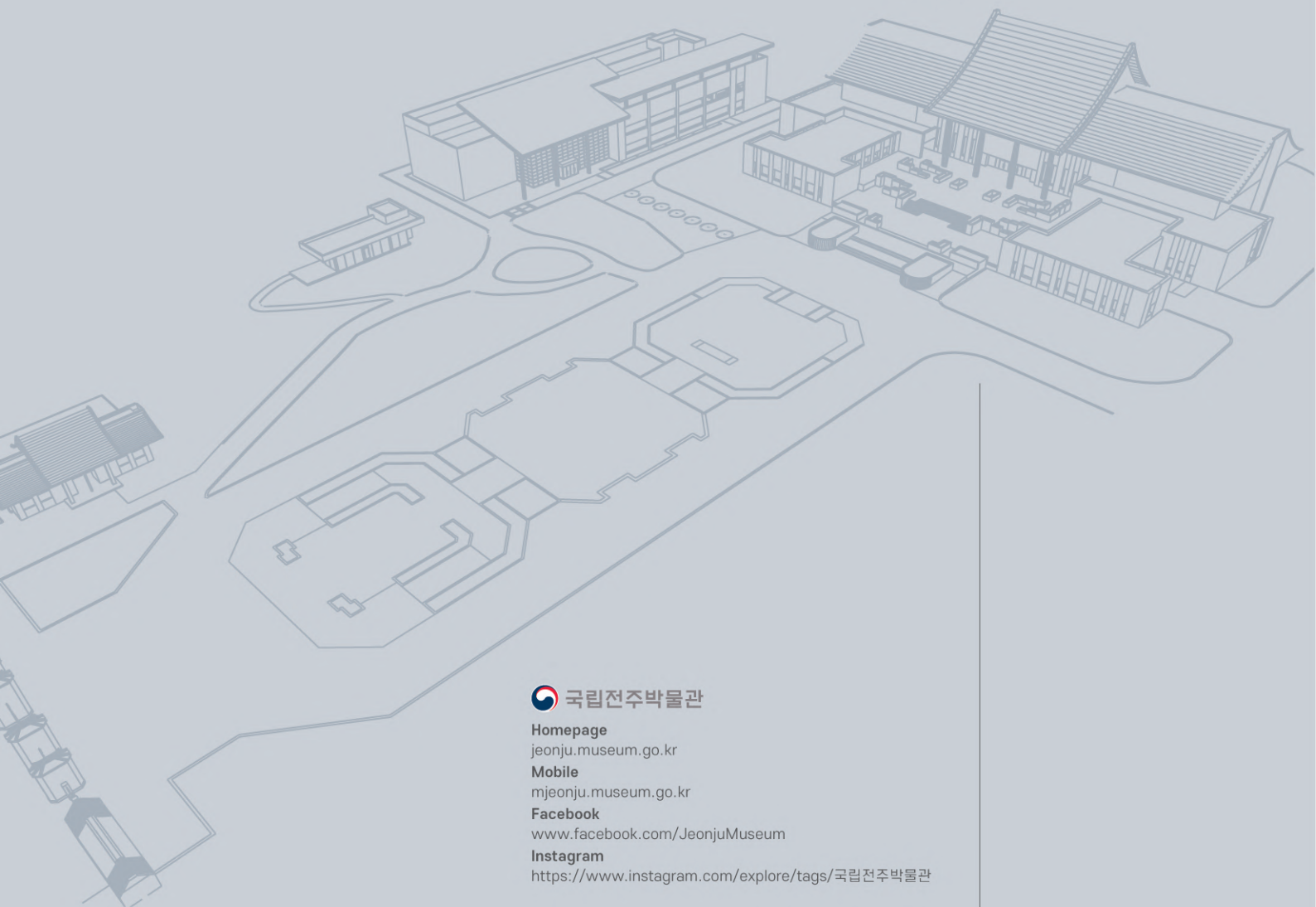


국립전주박물관

JEONJU
NATIONAL
MUSEUM



국립전주박물관

Homepage

jeonju.museum.go.kr

Mobile

mjeonju.museum.go.kr

Facebook

www.facebook.com/JeonjuMuseum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국립전주박물관>

선비문화실

Seonbi Culture Gallery

조선의 선비들은 끊임없이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탐구하며 실천했다. 선비문화실은 조선의 지도자이자 실천하는 지식인인 선비의 성장, 역할, 문화의 힘에 초점을 맞추어, 전시품이 지니는 역사적 맥락과 기능을 친절하고 상세하게 보여준다.

전시는 '조선, 선비를 기르다', '선비, 조선을 이끌다', '문화, 선비 정신을 지키다'의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선비의 초상肖像에서 선비 정신을 보고, 선비들의 필수 학습서『소학小學』에서 선비를 배우고, 올바른 관리의 지침서인『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선비의 역할을 살리고, 『한국의열록』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선비정신을 느낄 수 있다.



102
소학



105
송시열 초상



108
혼천의



112
책가도

1층

대표 전시품

● 조선, 선비를 기르다

- 101 서문영 묘지명
- 102 소학
- 103 김희 호패
- 104 관복
- 105 송시열 초상
- 106 인보첩

● 선비, 조선을 이끌다

- 107 서안, 벼루
- 108 혼천의
- 109 목민심서

● 문화, 선비 정신을 지키다

- 110 전주 류씨 종중 분묘 출토 명기
- 111 전주부지도
- 112 책가도
- 113 승경도
- 114 이정직 서화첩
- 115 동의보감, 약연
- 116 한국의열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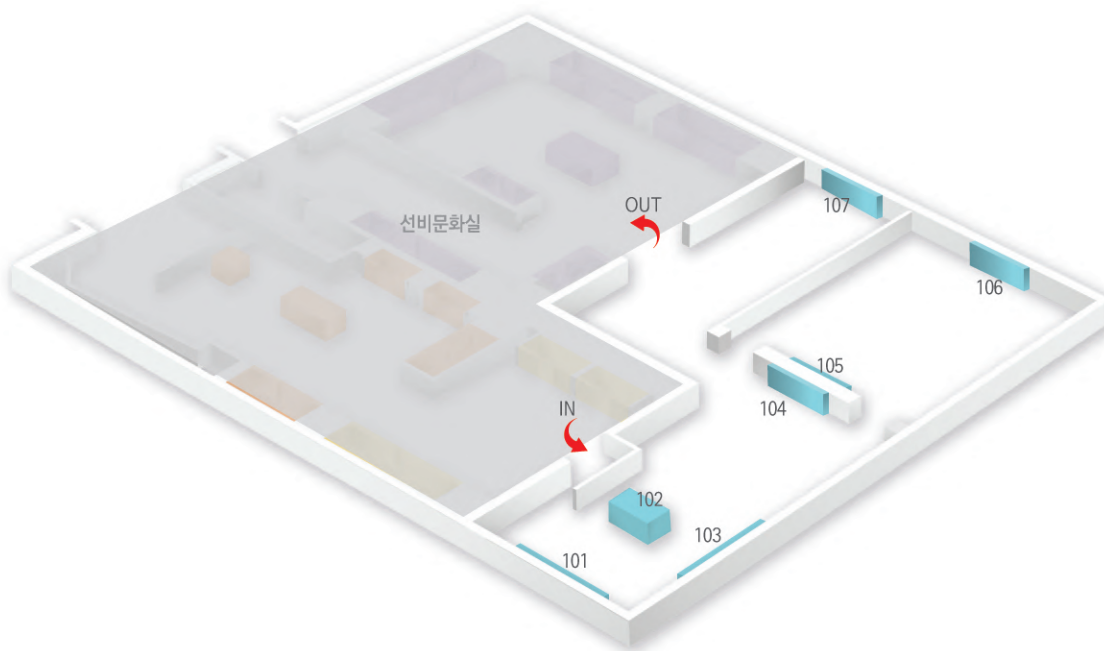
실감 콘텐츠 공간 : 선비와 자연

Seonbi in nature - Content space for realistic

"서원으로 가는 길을 거닐며 사색을 해보세요.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선비에게 다가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실감 콘텐츠 공간은 '선비와 자연'을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상설전시실이 일반적으로 유물 전시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 '선비문화실'에서는 전시공간과 함께 선비와 자연을 테마로 한 실감 콘텐츠 공간을 별도로 구성하여 온라인·미디어·체험의 시대적 조류에 발맞추고자 하였다. 실감 콘텐츠 전시공간은 총 7개의 테마로 구성되었다. 콘텐츠를 통해 선비와 자연의 경관을 체험해 볼 수 있게 된다. 각각의 테마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비가 바라본 별자리'에는 천문을 통해 하늘의 이치를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던 선비들의 모습을 별자리로 형상화하였다. '차 한잔에 스며든 선비 정신'은 다도茶道 속에 담긴 선비정신을 다채로운 이미지와 영상, 아름다운 시詩와 함께 감상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비와 자연'은 선비와 조화로운 자연을 연출하는 반응형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서원을 바라보며' 공간에서는 대표적인 서원인 병산서원屏山書院의 정문으로 들어가는 영상을 구현하였다. '만대루에 올라서서'에는 병산서원 만대루晩對樓에서 바라보는 자연의 풍경을 표현하였다. '서원, 선비정신을 키우다'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서원의 사계절을 3면 입체 영상으로 구현하여 시각, 청각을 통해 느끼고 사색하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선비, 유람길에 오르다' 코너에는 가상의 선비가 선비의 일상, 교유와 나들이, 명산을 유람하는 모습을 김홍도를 비롯한 주요 회화작품 속에서 구현하였다. 작품에 참여하며 유람을 떠나는 선비의 모습을 통해 관람객들은 영상 몰입과 동시에 선비의 삶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층

콘텐츠 테마

● 실감 콘텐츠 공간 : 선비와 자연

- 101 선비가 바라본 별자리
- 102 한 잔에 스며든 선비 정신
- 103 선비와 자연
- 104 서원을 바라보며
- 105 만대루에 올라서서
- 106 서원, 선비정신을 키우다
- 107 선비, 유람길에 오르다



102
한 잔에 스며든 선비 정신



103
선비와 자연



107
선비, 유람길에 오르다

고고실

Prehistory and Ancient History Gallery

고고실考古室에서는 전북 지역의 선사와 역사시대 문화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는 '전북 선사문화의 시작'과 '마한, 그 시작', '마한에서 백제로', '고대 국가의 완충지 전북', '백제의 부흥 그리고 후백제'의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품은 최근에 발굴 조사된 유물을 망라하였다. 전북 지역의 초기철기시대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완주完州 신평 유적의 잔무늬거울,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전북 지역 마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고창高敞 봉덕리 유적의 금동장식신발 등 2,0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북 지역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고대 문화의 흐름을 경험할 수 있다.



1층

대표 전시품

● 전북 선사문화의 시작

- 101 솜베찌르개
- 102 빗살무늬토기
- 103 다양한 농공구
- 104 거친무늬거울
- 105 간돌검
- 106 거무집, 한국식동검, 잔무늬거울, 구슬

● 마한, 그 시작

- 107 청동거울
- 108 완주 갈동 유적 출토 유물
- 109 단아구
- 110 원통형토기

● 고대 국가의 완충지, 전북

- 111 다양한 가야 토기들
- 112 그릇받침
- 113 닭머리 모양 청자항아리
- 114 굽다리긴목항아리

● 마한에서 백제로

- 115 금동장식신발
- 116 중국제 청자항아리
- 117 긴목항아리

● 백제의 부흥, 그리고 후백제

- 118 왕궁리 유적 출토 도가니
- 119 확식
- 120 '금마저성' 명 기와
- 121 '전주성' 명 기와



106 거무집, 한국식동검, 잔무늬거울, 구슬



113 닭머리 모양 청자항아리



115 금동장식신발



121 '전주성' 명 기와

...

미술실

Fine Arts Gallery

미술은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시각과 조형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아울러 제작될 당시의 시대정신을 담아내면서 기록되지 않은 역사를 읽어낼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미술실美術室에는 불교미술佛敎美術品과 도자기陶瓷器, 목칠기木漆器, 한지漢紙 공예품을 전시하고 있다.

전 남원출토 금동사리기를 포함하여 불상과 불교의식구佛敎儀式具를 감상할 수 있다. 특히 고려청자의 대표적 대표적 생산지인 부안扶安 유천리와 초기 청자 가마로 알려진 진안鎭安 도토리 가마 출토품, 조선시대 대표적인 분청사기 가마인 고창高敞 용산리 출토품 등이 전시되어 있어 전국의 도자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전주의 한 면을 엿볼 수 있는 한지공예품을 통해 전북지역 사람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다.



2층

대표 전시품

● 전북의 불교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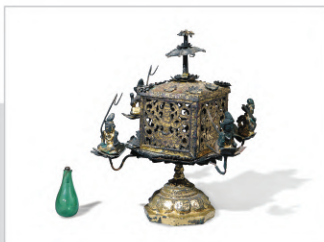
- 202 금동보살상
- 204 전 남원 출토 금동사리기, 천부상
- 205 향완
- 206 전 낙수정 출토 범종
- 207 식복
- 208 용무늬대야

● 전북의 도자문화

- 209 청자편
- 210 청자 꽃모양 접시
- 211 청자 고리무늬 의자
- 212 청자 참외모양 주전자·청자 잔과 받침
- 213 청자편
- 214 고려백자편
- 215 청자 잔과 받침
- 216 청자 국화무늬 접시
- 217 청자 포도무늬 주전자
- 218 청자 용무늬 매병
- 219 분청사기 물고기무늬 향아리

● 목공예와 한지공예

- 220 경상
- 221 태극무늬 부채



204 전 남원 출토 금동사리기



206 전 낙수정 출토 범종



218 청자 용무늬 매병



221 태극무늬 부채

역사실

Medieval and Early Modern History Gallery

전주는 조선 왕실의 선조들이 뿌리내리고 살던 지역이다. 또한 활발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던 풍요로운 도시였다. 특히 전주에서 간행된 완판본完판本 서적은 18세기에 이르면 민간에 판매하기 위해 목판에 새겨 찍어내는 방각본坊刻本의 주류가 되며 전주는 다양한 서적이 출판되는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되었다. 전라북도는 석지 채용신(石芝 蔡龍臣, 1850~1941)과 창암 이삼만(蒼巖 李三晩, 1770~1847), 석정 이정직(石亭 李定稷, 1841~1910), 이재 황윤석(頤齋 黃胤錫, 1729~1791) 등 선구적 지식인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기도 하다. 역사실은 전주를 중심으로 전라북도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으며, 전라북도 출신 지식인들의 풍모를 그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다.



2층

대표 전시품

● 전주, 조선 왕실의 본향

- 301 태조어진
- 302 전주이씨 족보
- 303 어제수덕전편
- 304 예종 태항아리 외호
- 305 조경단비 탁본
- 306 고종황제 어보

● 전라도의 중심, 전주

- 307 고문진보
- 308 전문옥편
- 309 사랑방
- 310 완산부지도
- 311 나전 십장생무늬 함
- 312 전주장(반달이)

● 전북의 선구적 지식인들

- 313 이삼만 글씨 병풍
- 314 이수신편
- 315 연석산방미정문고
- 316 김철상 초상
- 317 이정직 문인화 병풍



301
태조어진



304
예종 태항아리 외호



310
완산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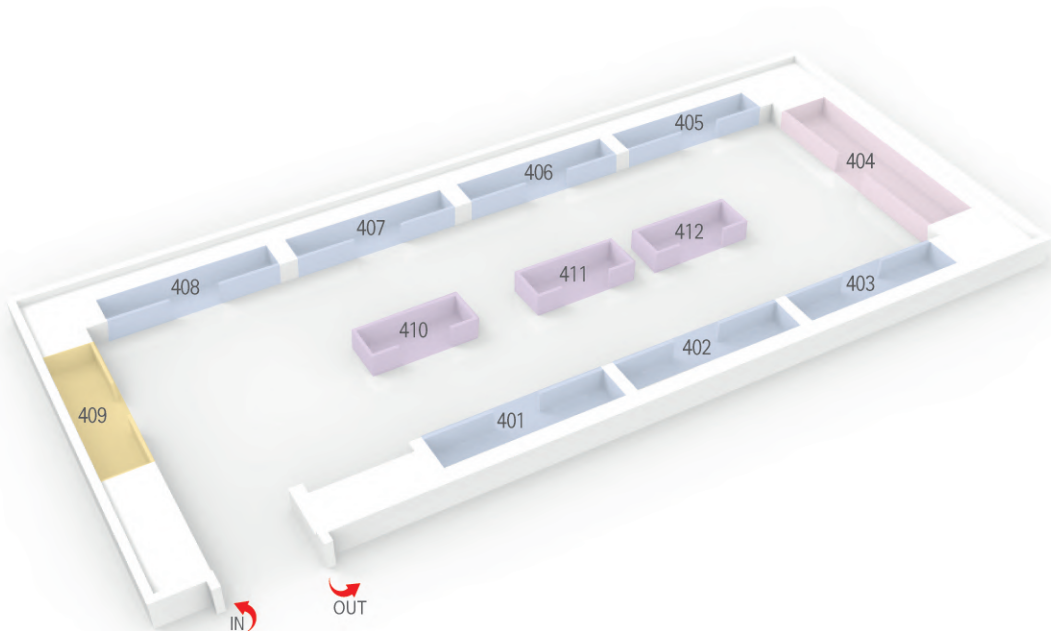


312
전주장(반달이)

석전 기념실

Seokjeon Memorial Room

서예가로 명망이 높은 석전 황옥(石田 黃旭, 1898~1993)을 기리는 전시실이다. 기념실은 황옥의 아들인 황병근이 5천여 점이 넘는 문화재를 1999년 국립전주 박물관에 기증한 데에서 비롯된다. 2002년 11월 개관하여 황옥의 친필 서예와 유품 및 옛 책과 편지 등 150여 점을 전시한다.



1층

대표 전시품

● 석전의 서예

- 401 운강서실
- 402 오연시병풍
- 403 승사여제
- 405 주경득천전
- 406 칠연시대련
- 407 온고지신
- 408 칠연시병풍

● 석전의 생애

- 404 석전 황옥선생 유품

● 평해황씨 유물

- 409 두보시집

● 수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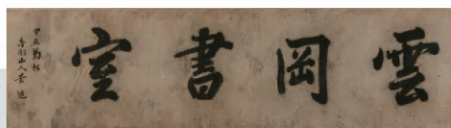
- 410 옛 편지 모음집
- 411 정약전이 보낸 간찰
- 412 반계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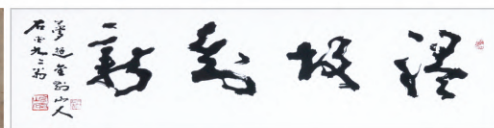
404
석전 황옥선생 유품



412
반계수록 蘭溪隨錄



401
운강서실雲岡書室



407
온고지신溫故知新

...

어린이박물관

Children's Museum

조선시대 대표적 선비인 오성과 한음과 함께 '조선 선비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전시 공간은 1실 '선비의 삶이', 2실 '선비의 놀이'로 나누어져 있다. 1실은 초등학생을 위한 공간으로 선비의 일생을 체험할 수 있다. 2실은 7세 이하의 영유아를 위한 공간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체험공간에서 다양한 신체놀이를 즐길 수 있다.

꼬마선비 납신다



어린이박물관 관람 정보

관람방식 : 누리집 사전예약제(보호자 포함 4명 이하, 단체관람 금지, 무료)

관람대상 : 영유아 및 초등학생

이용시간

회차	시간	인원(보호자포함 4명이하)	기타사항
1	10:00~11:00	1실, 2실 통합10명	한 가족당 최대
2	14:00~15:00	1실, 2실 통합10명	4명 이하만 입장가능
3	16:00~17:00	1실, 2실 통합10명	(보호자를 포함한 인원)

...

옥외전시

Outdoor Exhibition

고분古墳과 불교미술佛敎美術, 민속民俗 영역으로 나뉜다. 고분은 군산 도암리, 완주 둔산리, 전주 평화동에서 발견된 백제시대 고분을 이전하여 복원하였고, 불교미술 영역은 익산 지역의 대표적 백제 사자인 미륵사지와 제석사지에서 나온 석등과 함께 정읍 무성리에서 발견된 석불입상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민속 영역은 전라북도의 민속문화를 대표하는 부안 서외리 석장승·석제 솥대와 무주 대평리 돌탑, 순창 창덕리 남근석 등을 복제하여 전시하고 있다.



02 문인석(황병근 기증)



03 석양



04 정읍 무성리 석불입상



01 옥외 고분군(군산 도암리, 완주 둔산리, 전주 평화동)

관람 안내

관람 시간 평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입장시간 오후 5시 30분까지)
※ 문화가 있는 날 : 매월 마지막 수요일 직후 토요일 오후 9시까지
토·일·공휴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1시간씩 연장)
3월 ~10월 | 매주 토요일 야간 개장 (오후 9시까지)
※ 박물관 운영에 따라 시간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람 요금 무료 (특별 전시는 유료일 경우도 있음)

휴관 안내 정기 휴관일 | 1월 1일, 설날, 추석날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기관 임시휴관 명령시

전시 해설 프로그램

개인 전시 해설

이용 가능 일시 | 월요일~토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휴관일 제외)
현장 접수 및 전시 설명 희망일 하루 전까지 일정을 선택하여 누리집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 신청 후 담당자가 유선으로 연락드린 후에 예약을 확정합니다.
(단, 현장 접수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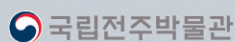
단체 전시 해설

대상 | 30명 이상 단체
이용 가능 일시 | 월요일~토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휴관일 제외)
전시 설명 희망일 1주일 전까지 일정을 선택하여 누리집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전시 해설의 효율성을 기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회당 사전 예약자를 30명 이상으로 제한하며, 사전 예약 신청 후 담당자가 유선으로 연락드린 후에 예약을 확정합니다.

문의 | 063-220-1055 (오전 10시 ~ 오후 6시, 휴관일 제외)
※ 코로나19 관련으로 전시 해설 프로그램은 별도 공지시까지 운영하지 않습니다.

관람 시 유의 사항

전시물은 손으로 만지지 않습니다.
플래시·삼각대를 이용한 사진 촬영, 흡연, 음식물 반입 및 애완동물의 출입은 금지합니다.
전시실 내 휴대전화 통화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5507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송곡개로 249
전화 063)223-5651~2 팩스 063)223-5653

시설 안내



뮤지엄샵

본관동 1층에 위치하며 기념상품과 중요 문화재 재현 작품, 실생활에 사용 가능한 공예품 및 문화·역사에 관한 서적과 도록을 판매합니다.
영업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박물관 카페

본관 2층에 위치하며 다과류를 판매합니다.
영업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문화사랑방

본관동 1층 53석 규모로 평일에 문화 영상물, 주말과 야간 개장 시에는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평일·주말 | 오전 11시, 오후 2시
야간개장시 | 오후 6시



강당

본관동 1층 234석 규모로 박물관 대학 등 강좌나 세미나가 열리며,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문화 공연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설 공간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연중 오전 10시 ~ 오후 6시(휴관일 제외)



세미나실

본관동 1층 40석 규모의 강좌와 세미나를 위한 공간으로 다양한 학술 강좌를 위해 공간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연중 오전 10시 ~ 오후 6시 (휴관일 제외)



수유실

본관 2층과 어린이박물관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유이자 2개, 정수기 개수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